일 주 문



오대산 문화축제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0월 6~10일 사찰 일원서 제15회 오대산 문화축제 '바람의 빛깔'을 개최한다.



복지 공로 대통령 표창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9월 7일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서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화합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자신을 낮추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완성되는 합창처럼 화합하는 모습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9월 12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정임숙 제7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서 정임숙 회장은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11월 5일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할 '2018부산불교합창제'에 대해 "축제와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합창제에는 9개 사찰합창단과 부산불교연합합창단 그리고 각 사찰 합창단 지휘자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이 무대에 올라 격조 높은 찬불가의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음악은 행복을 줘야 한다. 축제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행사들로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이라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응공조계종 대만 성지순례

종정 · 원로스님 등 40명 동행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9월 2~6일 대만 장향사 해외성지순례 및 응공조계종 종도 스님 제2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원 흥원 · 수덕 스님과 혜운 · 지암 · 정묵 경봉 스님 등 종단 국장소임스님들과 임원신도 40여 명이 동행했다.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대만 현지 장향사에서 수행자로서 연수교육의 목적과 중요성, 초발심 수행자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인간은 복이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괴로워한다. 하지만 복은 불로 태우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는다"며 "천상에서나 세속에서 닦은 복이 있으면 편안하니 우리는 살면서 복 짓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승가인재 활용과 소통 교육에 방점"

Interview

신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출가 후 첫 소임 소회 남달라
재가자 위한 교수법 개발 관심
승가교육 보탬 되도록 노력을

"출가 이후 공부하고, 스님들과 일반 학생을 가르쳐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종단에 무언가를 회향하는 일은 없었네요. 이번 기회에 승가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에 임명된 정운 스님은 임명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정운 스님은 직할교구를 재적본사로 명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수계했고,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출가 이후 종단 장학승으로 동국대서 석 · 박사를 받았고, 2011년부터 시작된 종단 교육아사리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오로지 공부와 강의, 저술 활동에만 집중한 정운 스님은 사실 이번이 출가 이후 첫 종무직 소임이다. 사찰 7직 소임도 살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학승으로서의 내공은 상당하다. '마조선 연구'로 2009년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이후 연구와 강의, 저술활동에 전념했다. 저서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된 책들도 2권이 있다.

강의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운 스님은 2009, 2010년 연속으로 동국대 교수평가에서 '최고 강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 스님이 종단 승가교육 방향과 아젠다를 만드는 불학연구소의 수장을 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정운 스님은 첫 종무직 소임인 만큼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승가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승가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한 종책들에 관심을 갖겠다고도 했다.

"요즘 많은 스님들이 석 ·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논문집을 발간하는 등 고급 인재들이 종단 안팎에서 연구 ·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자신이 최근 천착하고 있는 대중들과의 소통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어엿한 수행자를 양성하는 승가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재가자들에게 바르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교수법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무엇보다 스님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 발심을 유지하며 천천히 하나하나를 이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금 거창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제 자리에서 승가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살림' 야단법석 전국서 성황

불교상담개발원, 9월 1~10일
30여 사찰서 5000여 불자 동참



9월 10일 봉은사에서 열린 생명살림대법회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불자들의 모습.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이 보건복지부 민관협력사업으로 실시한 '2018 생명살림 대법회'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법회는 전국 30여 사찰 및 신행단체의 동참 아래 5100여 불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회 법사로는 지운 스님, 선업 스님, 가섭 스님, 효록 스님, 원영 스님 등이 나섰다. 먼저 9월 1일 목우선원에서 진행된 대법회는 인경 스님이 법문했다. 이어 9월 8일 김제 금산사에서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이 포교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또 9월 9일 조계사, 길상사, 범어사, 마곡사, 수덕사 등을 비롯한 12개 사찰에서 1000여 명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회가 진행됐으며, 9월 10일 봉은사, 화계사, 목동국제선센터, 광주 증심사, 동원사, (사)자비신행회, 서산 서광사 등 14개의 사찰에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계 자살예방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생명살림 발원문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새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교적 생명존중 · 자살예방의 생명살림 서약문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자살예방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은 9일 전북불교대학서 효록 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서 전북불교대학과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사회활동 증진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참여한 사찰 및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 프로젝트-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해 전국적인 자살예방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53순례단 선운사 도솔암 순례

선묵혜자 스님 등 2000여 명 운집해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9월 7~8일 고창 선운사와 도솔암을 방문했다. 선운사에 도착한 2,000여 명의 순례단은 혜자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함께 대웅보전에 평화의 불 점등과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미륵도량과 지장도량인 도솔암 마애불 앞에서 53기도도량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공양미 4천kg 군청 기탁

9월 11일 저소득가정 돕고자 구례군에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11일 지역 저소득 이웃을 위해 공양미 4,000kg을 구례군에 전달했다. 사회국장 해덕 스님 등은 구례군청을 방문해 김순호 군수에게 공양미를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한 공양미는 신도들이 법당 공양미로 올린 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천 대승사 중창불사 기공

유치원 터에 3층 건물 신축 계획



순천 대승사(주지 보리)는 9월 11일 '대승사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 도심포교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터에 현대식 3층 건물 신축을 시작했다. 주지 보리 스님은 "대승사는 대표적 도심 포교당이었으나 오랜 세월 속에 모든 전각이 낡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불자들의 정성으로 대승사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 합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더불어 한가위가 성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눈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불령동천과 한가위 만큼 넉넉한 불령산자락의 품에서
좋은 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날 짜 불기 2562(2018)년 9월 29일
(음 8월 20일) 토요일

■ 시 간 오후 3시

■ 장 소 청암사 자양전

■ 문 의 054) 432-2652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유화 합장